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김 희 경<sup>†</sup>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촉진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들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들을 고찰하여 8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25명과 남한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군은 26명, 대조군은 29명이었다. 종속 측정치는 상호 감정, 신뢰감, 거리감, 친밀감, 소외감이었고, 사전, 사후, 추수검사를 실시하였다.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신뢰감, 친밀감 수준이 높았으며, 부정적인 감정과 거리감은 적었고,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했다. 프로그램 참여군 내에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친밀감, 거리감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신뢰감은 프로그램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중반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신뢰감, 친밀감, 상호 교류, 편견, 집단상담 프로그램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2014S1A5A8018722).

† 교신저자 : 김희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58245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Tel : 061-330-3535, Fax : 061-330-3538, E-mail : kimhk@dnu.ac.kr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000명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통일부, 2016).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정서 및 심리적 불안정 해소,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 완화, 기초직업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직후에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약 60시간 정도의 초기 정착지원 교육이 진행되며,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진로탐색과 직업준비교육, 심리안정 교육 등이다. 그 외에도 주거 지원이나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보험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74.5%에서 2014년 67.6%, 2015년에는 6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2014; 2015b).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 등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법제처,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적 개입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외상후 스트레스이다(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민성길, 전우택, 김동기, 2006; 서주연, 2006; 정윤경, 김희진, 2014;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남한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문화 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희, 배성우, 2006;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오수성, 김희경, 김석웅, 최영미(2008)가 개발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극복 프로그램’은 하나원 교육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불안, 신체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김승현, 최빛내, 2013). 이에 비해 최현옥과 손정락(2011)의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계적인 생활 습관이나 북한식 말투, 언어습관, 안정적인 직장생활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등의 수치심을 경험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이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규 등(2014)이 실시한 ‘계슈탈트 관계성향상 프로그램’은 하나원 교육생의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2010)의

‘셀프파워 프로그램’도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해결중심미술치료도 가족상실을 경험한 탈북 여성의 우울감과 죄책감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하나, 2013). 권태용(2008)은 지역사회에 막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단기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울감 완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불신하고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또한, 그들을 두렵고, 게으르며, 거친 사람으로 여기면서 적대시키고 기피하며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유혜숙, 이현숙, 2014; 윤인진, 2010). 사회적 거리감도 컸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이주노동자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피상적이고 공식적인 이차 집단의 관계는 허용하지만 친밀한 일차 집단의 관계는 기피하였으며, 편안하거나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윤인진, 2010).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친절성이나 근면성,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진실성이나 신뢰

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윤인진, 2010).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을 결코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하면서 불신감을 느낀다(김희경, 2016).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백안시하면서 기피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편견이 다양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진다고 여긴다(유혜숙, 이현숙, 2014). 이들이 지각한 차별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한다고 느낄수록 남한 사회적응도는 낮았다(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이재민, 황선영, 2008; 정운경, 김희진, 최지현, 2015).

이주민과의 접촉은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김혜숙 등, 2011).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접촉도 서로에 대한 이해 및 동질감과 친숙함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을 거듭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인식하였고, 더 많이 이해하였으며, 친밀감도 높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들을 신뢰하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꼈으며, 사회적 거리감도 적었다(이수정, 양계민, 2013).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들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혜숙, 이현숙, 2014).

그러나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상당 기간 동안 서로 교류하고 지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의 경험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며, 동일한 내용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서로의 지각과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김희경, 2016).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2007)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문화이해지(정진경, 1998)를 이용하여 양측의 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춘 단기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감과 동질감은 남한주민에서만 증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서로에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도 제안하고 있다시피,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에는 프로그램의 회기가 4회기로 너무 짧고, 집단 구성원의 수가 4명으로 적으며, 촉진을 위한 협동활동들이 부족하다. 또한, 문화이해지도 남한주민에게 북한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내용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였고, 정서적 교류보다는 지적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남한주민들의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김희경(201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 불신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성열 등(2007)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프로그램 개발의 체계성과 효과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중요하다는 제도적, 학술적, 실제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러한 효과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들을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 대한 요구조사에 기초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치고자 하며, 본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상호 감정, 심리적 거리감, 신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 간의 심리적 화합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방 법

### 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하나(2011)가 제안한 모형을 참조하여 개발하였고, 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선행연구들(강숙정 등, 2010; 권대용, 2008; 김승현, 최빛내, 2013; 김정규 등, 2014; 조하나, 2013; 최현욱, 손정락, 2011; 한성열 등, 2007)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성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인지적 요소 외에 신체 접촉을 통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프로그램의 회기가 짧을 경우에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관계기관의 협조 및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의 면담, 홈페이지 탐색 등을 통하여 하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하나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사회에 신규 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 집중교육과 기존 전입자들을 위한 사후지원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으로 인식개선 캠페인, 북한음식 나누기, 송년잔치,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들의 특성이나 문제해결방식 등에 관해 잘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남한에 정착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10명 및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한 경험이 있는 남한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김희경, 2016). 북한이탈주민은 언어 표현 방식의 차이나 낮은 언어와 환경으로 인해 남한주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며, 남한주민은 마음의 벽과 북한이탈주민의 습성, 강한 결속력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을 느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태도 변화나 가식적인 태도, 배신 등으로 인해 남한주민을 믿지 못했으며, 남한주민은 언어나 언어표현 방식, 행동방식의 차이와 선입견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편감과 거부감을 느꼈다. 이들은 교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단 계	내 용
문헌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습관이나 태도, 언어습관, 문화적 이질감 등을 고려할 필요</li> <li>·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li> <li>·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적응을 요구하기보다는 남한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li> <li>· 남한주민과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필요</li> <li>·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li> <li>·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방어 감소와 편한 참여에 도움</li> <li>· 불참자나 중도 탈락자가 집단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li> <li>· 한 집단의 규모가 너무 적으면 집단의 힘이 한쪽 출신자들에게 쏠리는 현상</li> <li>·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신체 접촉 활동 필요, 단순 접촉보다는 신뢰로운 협동 활동 포함</li> <li>· 4회기로는 프로그램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움</li> </ul>
I 프로그램 기획	<p>하나 센터 프로그램 현황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li> <li>·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li> <li>·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음</li> <li>·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며,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li> <li>· 절차보다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농후</li> <li>·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이나 욕구는 다양한데 프로그램은 많지 않음</li> <li>· 외부 강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함</li> </ul> <p>요구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요소들 :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낮은 언어와 환경, 피상적인 관심, 자격지심</li> <li>·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불신감을 느끼는 요소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변화, 가식적인 태도, 믿었던 남한사람으로부터의 배신</li> <li>·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요소들 : 마음의 벽, 북한식 습성, 강한 결속력, 빈약한 현실 인식</li> <li>·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편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요소들 : 언어와 언어표현 방식 및 행동방식 차이, 우리의 선입견, 그들의 피해의식, 앞뒤가 다른 모습</li> <li>· 교류를 통한 깨달음: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 필요</li> </ul>
↓	
II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과 활동 요소 수집</li> <li>· 내용과 활동 요소 선정</li> <li>· 내용, 활동, 형식 구조화</li> <li>· 서로의 거리 인식</li> <li>· 서로의 언어와 생각, 문화, 가치관 차이 알기</li> <li>· 서로의 삶 공유 및 친밀감 촉진 활동들</li> </ul> <p style="text-align: right;">→ 8회기 예비 프로그램 개발</p>
↓	
III 프로그램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 및 프로그램 타당성 검증 : 상담심리 전공 교수 2인, 임상심리전문가 2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2인</li> </ul> <p style="text-align: right;">→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p>
↓	
I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군 및 대조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55명</li> </ul> <p>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실시: 주 1회씩 총 8회기, 회기당 90분, 양측 동수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집단</li> <li>· 프로그램 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ul>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 평가: 사후검사(상호 감정,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친밀감, 소외감 수준)</li> <li>· 주관적 평가: 프로그램 참여군 회기별 소감문 내용 분석</li> </ul>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의 절차와 내용

있었다.

문헌고찰이나 하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조사, 요구조사 결과들은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거리감과 불신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와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과 같이 친밀감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 및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한 4회기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8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활동요소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인식, 서로의 언어와 생각,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 서로의 인생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 화합을 촉진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는 90분이며, 회기별 주제에 40분, 도입과 마무리에 각 20분을 할당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차이점은 교육이나 설명보다는 대화 및 함께 하는 활동과 역할극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부는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 접촉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회로애락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마무리 시간의 비중도 높여서 회기에서 경험한 것들을 충분히 공

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구성한 예비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상담심리 전공 교수 2인, 임상심리전문가 2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2인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목표의 적절성, 내용의 적합성,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4.69( $SD=0.45$ )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심리적 거리감 감소 및 친밀감 증진에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예비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와 자문을 통해 보완된 내용들은 회기 순서 조정(언어나 문화의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서로의 거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앞 회기에 배치), 활동 내용 변경 및 추가(서로의 거리를 선 그림이 아니라 여러 색깔의 끈을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 5회기와 6회기의 역할극 전에 관련 경험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추가, 종결 회기에 참여 소감을 나누는 것 외에 공동화 그리기 활동 추가), 활동 순서 수정(2인 1조 등으로 이루어지는 팀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집단원들 간에 경험 공유 기회 확대)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4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집단을 구성할 때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동수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과정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표 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주제	목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및 라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운영 방식 등을 이해한다.</li> <li>· 진행자와 집단원, 집단원들 상호 간에 라포를 형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자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li> <li>· 사전검사 실시</li> <li>·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li> <li>· 프로그램 규칙 정하기, 서약서 작성하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li> </ul>
2	서로의 거리 마음의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 선입견, 편견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접촉 활동</li> <li>· 5색 끈을 이용한 서로의 거리 알아보기</li> <li>· 형용사로 표현한 서로의 거리 들려다보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2차 검사)</li> </ul>
3	서로의 말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를 인식한다.</li> <li>· 서로의 언어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의 언어를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일깨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접촉 활동</li> <li>· 퀴즈로 풀어보는 남북한 단어비교</li> <li>· 함께 신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찾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3차 검사)</li> </ul>
4	서로의 생각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의 생각의 공통성과 차이점, 서로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고,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일깨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주간 가장 기뻐던 일 이야기하기(喜)</li> <li>· 가족 동반자살 뉴스 보고 이야기 나누기</li> <li>· 간첩사건 뉴스 보고 이야기 나누기</li> <li>· 방송에 비친 북한이탈주민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4차 검사)</li> </ul>
5	서로의 문화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남한의 문화 차이를 알아본다.</li> <li>· 서로의 문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일깨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주간 가장 화났던 일 이야기하기(怒)</li> <li>· 문화 차이를 크게 느낀 경험 이야기하기</li> <li>· 식사비 계산, 거절하기 등에 대해 역할연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5차 검사)</li> </ul>
6	서로의 가치관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가치관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일깨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주간 가장 슬펐던 일 이야기하기(哀)</li> <li>· 가치관의 차이를 크게 느낀 경험 이야기하기</li> <li>· 자녀교육, 성역할 등에 대해 역할연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5차 검사)</li> </ul>
7	서로의 인생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주간 가장 즐거웠던 일 이야기하기(樂)</li> <li>· 인생그래프 그리기</li> <li>·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7차 검사)</li> </ul>
8	공동화 작업 및 프로그램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의 심리적 화합을 촉진한다.</li> <li>·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고 변화한 점들에 대해 공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에 관한 “공동화” 작업</li> <li>· 프로그램 참여 전후 달라진 점, 느낀 점 작성 및 소감 나누기</li> <li>· 사후검사</li> </ul>



## 프로그램 효과 검증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총 60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연구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을 통해 참여자를 일부 추천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추천 받는 방식으로 참여군을 선정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참여군과 대조군에 각 15명씩 총 30명이었다. 참여군에서 중도 탈락 했거나 3회 이상 결석한 북한이탈주민은 4명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1명이 중도 탈락하여서 최종적으로 참여군 11명과 대조군 14명 등 총 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한 평균 기간은 참여군이 52.4( $SD=32.6$ )개월이었고, 대조군이 75.9( $SD=57.3$ )개월이었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한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 및 시기 등을 공지하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대조군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이었다. 참여군과 대조군에 각 15명씩 총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위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총 55명이었다. 프로그램 참여군은 26명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각 11명과 15명이었다. 대조군은 총 29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14명, 남한주민이 15명이었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프로그램 참여군과 대조군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종교 유무, 월 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 유무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대조군이 참여군에 비해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더 많았다.

### 연구 도구

#### 상호 감정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감정과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감정은 김혜숙(2002)의 감정 형용사를 양계민과 정진경(200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총 15개의 감정 형용사들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 7문항(예를 들면, 불쾌하다, 혐오스럽다, 두렵다 등), 긍정적인 감정 6문항(예를 들면, 정이 간다, 좋다, 친근하다 등), 연민 2문항(불쌍하다, 슬프다) 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해 해당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 .72,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86, .88, .82였다.

#### 상호 신뢰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신뢰감과

표 2.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빈도(%))

특성	참여군(n=26)		대조군(n=29)		$\chi^2$	F
	북한이탈주민 (n=11)	남한주민 (n=15)	북한이탈주민 (n=14)	남한주민 (n=15)		
성별	남	0( 0.0)	1( 3.8)	1( 3.4)	3(10.3)	1.64
	여	11(42.3)	14(53.8)	13(44.8)	12(41.4)	
연령(세) <sup>a</sup>		43.18(10.75)	45.67(11.11)	46.14(12.32)	44.27( 5.43)	.0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 3.8)	0( 0.0)	0( 0.0)	0( 0.0)	1.24
	고졸	7(26.9)	4(15.4)	10(34.5)	4(13.8)	
	고졸 이상	3(11.5)	11(42.3)	4(13.8)	11(37.9)	
결혼 상태	미혼	2( 7.7)	1( 3.8)	2( 8.0)	2( 8.0)	5.36
	기혼 및 동거	7(26.9)	11(42.3)	8(32.0)	13(52.0)	
	이혼	2( 7.7)	3(11.5)	0( 0.0)	0( 0.0)	
직업	없음	9(34.6)	9(34.6)	8(27.6)	2( 6.9)	6.62**
	있음	2( 7.7)	6( 7.7)	6(20.7)	13(44.8)	
월평균 가계 소득 (만원)	100 이하	7(28.0)	1( 4.0)	6(23.1)	0( 0.0)	3.52
	100~200	2( 8.0)	4(16.0)	5(19.2)	0( 0.0)	
	200~300	1( 4.0)	4(16.0)	0( 0.0)	9(34.6)	
	300~400	0( 0.0)	1( 4.0)	0( 0.0)	3(11.5)	
	400~500	1( 4.0)	1( 4.0)	0( 0.0)	2( 7.7)	
	500 이상	0( 0.0)	3(12.0)	0( 0.0)	1( 3.8)	
종교	없음	6(23.1)	3(11.5)	4(13.8)	12(41.4)	2.34
	있음	5(11.5)	12(46.2)	10(34.5)	3(10.3)	
친밀한 교류자 수 <sup>b</sup>	없음	3(11.5)	11(42.3)	0( 0.0)	14(48.3)	1.64
	1~5명	8(30.8)	3(11.5)	10(34.5)	1( 3.4)	
	5명 이상	0( 0.0)	1( 3.8)	4(13.8)	0( 0.0)	
남한 거주기간(개월) <sup>a</sup>		52.36(32.62)		75.93(57.30)		1.48

주. <sup>a</sup>평균(표준편차). <sup>b</sup>북한이탈주민은 친하게 지내는 남한주민의 수이며, 남한주민은 친하게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임. \*\*  $p < .01$ .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감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이 사용한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예들로는 ‘일자리에 안심하고 추천하겠다’, ‘자신의 일을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는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는 Bogardus(1925)가 소개한 개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거리감으로서, 특정 대상이 자신과 관계를 맺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양계민(2013)이 사용한 문항들(동네 이웃, 직장 동료, 사업 동업자, 친구, 애인, 결혼 대상자)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또는 남한주민)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매우 꺼려진다(1점)’부터 ‘전혀 꺼려지지 않는다(5점)’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 개념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분석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상호 친밀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Anderson(1979)의 친근감 척도(Generalized Immediac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가까움과 유대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김문수(2004)가 타인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다. 개념적으로

상반되는 5개의 문항 쌍(나와 관련있는-나와 무관한, 따뜻한-차가운, 친근한-친하지 않은, 가까운-먼, 유쾌한-불쾌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측정 개념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분석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소외감

Dean(1961)이 개발하고 신수아(2001)가 사용한 소외감 척도는 다양한 측면의 소외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무력감, 규범 상실감, 사회적 고립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 요인에 해당하는 5문항(예를 들면, 나는 가끔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어울려주지 않는다 등)을 통해 소외감을 측정하였다. 응답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수아(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호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이 전체 문항과의 상관이 너무 낮아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 문항을 제외한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65였다.

### 연구 절차

참여군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대조군

표 3. 프로그램 참여군의 집단별 참여자수

집단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합계
A	4(1)	5	9(1)
B	5(1)	5	10(1)
C	6(2)	5	11(2)
합계	15(4)	15	30(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분석에서 제외된 수임.

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참여군의 경우,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총 세 집단을 폐쇄 집단으로 운영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각 5~6명씩 10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참여군의 집단별 인적 구성은 표 3과 같다. A집단은 K광역시의 개인 상담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B, C집단은 M시의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1주일에 1회기씩 진행하였고, 한 회기당 운영 시간은 90분이었다. 추수평가를 위해 별도의 추수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추수회기 시간은 60분이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임상심리전문가 2명이 진행하였다. 이들은 본 프로그램의 개발에 자문 역할을 하여서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였다.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전에 프로그램 진행자와 보조진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체 회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에는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진행자 및 보조진행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 프로그램의 내용, 준비물 등을 검토하였다. 집단상담 진행자와 보조진행자는 매 회기가 끝난 후 프

로그램 진행자 모임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진행 상의 문제나 어려운 점, 특이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기 평가를 작성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매 회기마다 사전 연락을 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기시켰으며, 참여를 독려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사후, 추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군은 1회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8회기 종결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참여군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난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 회기마다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추수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후 4주가 경과한 시점에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함께 모여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군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대조군은 참여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기에 맞춰 세 차례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개시 시점, 종결 시점, 종결 후 4주가 경과한 시점에 각각 사전, 사후, 추수검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조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서 직원이 실시하였다. 남한주민은 연구보조원이 대조군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직접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자료 분석

사전검사에서 종속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참여군, 대조군)과 출신지(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과 출신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 단순주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참여군, 대조군)과 출신지(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를 집단 간 변인으로,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수)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2×2×(3)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수행하였다. 집단 간 변인과 집단 내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경우, 상호작용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대비검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검사와 추수검사의 차이는 제외하고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준1 대 수준2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즉, (참여군의 사전검사 점수-참여군의 사후검사 점수)-(대조군의 사전검사 점수-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수준2 대 수준3에서는 사후검사와 추수검사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즉, (참여군의 사후검사 점수-참여군의 추수검사 점수)-(대조군의 사후검사 점수-대조군의 추수검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참여군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종속측정치들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출신지(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를 집단 간 변인으로, 측정 시기(사전검사, 2~7회기, 사후검사, 추수검사)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는 2×(9)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반복측정 변량분석에서는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박광배, 2013)를 참조하였다. 끝으로, 차이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 회기마다 참가자들이 작성한 소감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결 과

### 집단과 출신지에 따른 사전검사 점수 비교

집단(참여군, 대조군)과 출신지(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에 따른 사전, 사후, 추수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먼저, 집단과 출신지에 따른 사전검사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출신지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긍정 감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51)=4.29, p<.05$ ). 프로그램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보였다. 그 외 부정 감정, 연민, 신뢰감, 거리감, 친밀감, 소외감에서는 참여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신지에 따라서는 부정 감정과 신뢰감, 소외감을 제외한 척도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F(1, 51)=7.85, p<.01$ ). 연민은 출신지의 주효과 및 집단과 출신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상대방에게 연민을 더 많이 보였다( $F(1, 51)=25.53, p<.001$ ).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한주민은 참여군과 대조군에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에 차이가 없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남한주민에 대한 연민 감정이 더 많았다( $F(1, 51)=5.69, p<.05$ ). 서로에 대한 거리감과 친밀감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을 더 많이 느꼈으며( $F(1, 51)=4.23, p<.05$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더 많이 보였다( $F(1, 51)=4.27, p<.05$ ).

표 4. 프로그램 참여군의 출신지별 사전, 사후, 추수 검사 점수 평균(표준편차)

종속 변인	측정 시기	참여군			대조군			전체		
		북한이탈 주민 (n=11)	남한주민 (n=15)	전체 (n=26)	북한이탈 주민 (n=14)	남한주민 (n=15)	전체 (n=29)	북한이탈 주민 (n=25)	남한주민 (n=30)	전체 (n=55)
긍정 감정	사전	3.73(0.76)	3.46(0.66)	3.57(0.70)	3.48(0.80)	2.64(0.69)	3.05(0.85)	3.59(0.78)	3.05(0.78)	3.29(0.82)
	사후	4.53(0.77)	4.17(0.83)	4.32(0.81)	3.70(0.63)	2.88(0.55)	3.28(0.71)	4.07(0.80)	3.52(0.95)	3.77(0.92)
	추수	4.26(0.72)	4.10(0.44)	4.17(0.57)	3.67(0.79)	2.66(0.65)	3.14(0.87)	3.93(0.80)	3.38(0.91)	3.63(0.90)
상호 감정	사전	1.92(0.93)	2.06(0.74)	2.00(0.81)	1.86(0.68)	2.22(0.77)	2.04(0.74)	1.89(0.78)	2.14(0.75)	2.02(0.77)
	사후	1.52(0.66)	1.50(0.56)	1.51(0.59)	2.10(0.95)	2.10(0.84)	2.10(0.88)	1.85(0.87)	1.80(0.76)	1.82(0.81)
	추수	1.64(0.75)	1.45(0.48)	1.53(0.60)	1.82(0.70)	2.35(0.81)	2.09(0.79)	1.74(0.71)	1.90(0.80)	1.83(0.76)
연민	사전	2.32(1.21)	3.07(0.86)	2.75(1.07)	1.57(0.92)	3.47(0.90)	2.55(1.31)	1.90(1.10)	3.27(0.89)	2.65(1.20)
	사후	1.82(1.08)	2.17(0.88)	2.02(0.96)	1.82(1.22)	2.70(1.07)	2.28(1.21)	1.82(1.14)	2.43(1.00)	2.15(1.10)
	추수	1.64(0.98)	2.47(0.95)	2.12(1.03)	1.82(0.93)	3.20(1.10)	2.53(1.22)	1.74(0.94)	2.83(1.08)	2.34(1.15)
신뢰감	사전	3.17(0.55)	3.04(0.48)	3.09(0.50)	3.27(0.65)	2.92(0.65)	3.09(0.66)	3.22(0.60)	2.98(0.56)	3.09(0.59)
	사후	3.77(0.69)	3.92(0.51)	3.86(0.58)	3.07(0.59)	2.95(0.55)	3.01(0.56)	3.38(0.71)	3.44(0.72)	3.41(0.71)
	추수	3.83(0.76)	3.79(0.53)	3.81(0.63)	3.10(0.72)	2.76(0.82)	2.93(0.78)	3.42(0.81)	3.28(0.86)	3.34(0.83)
거리감	사전	2.61(0.88)	2.73(0.71)	2.68(0.77)	2.31(0.79)	3.18(1.12)	2.76(1.06)	2.44(0.82)	2.96(0.95)	2.72(0.92)
	사후	2.00(0.77)	2.13(0.66)	2.08(0.70)	2.44(0.82)	3.12(1.07)	2.79(1.00)	2.25(0.82)	2.63(1.01)	2.45(0.94)
	추수	2.14(0.76)	2.17(0.75)	2.15(0.74)	2.38(0.87)	3.20(1.23)	2.80(1.13)	2.27(0.81)	2.68(1.13)	2.50(1.01)
친밀감	사전	3.07(1.44)	2.92(0.58)	2.98(1.01)	3.77(0.97)	2.81(0.73)	3.26(0.97)	3.45(1.23)	2.87(0.65)	3.13(0.99)
	사후	3.82(0.90)	3.97(0.77)	3.91(0.82)	3.71(0.85)	2.97(0.90)	3.31(0.94)	3.76(0.85)	3.47(0.97)	3.60(0.92)
	추수	3.95(0.77)	3.88(0.72)	3.91(0.73)	3.80(0.86)	2.93(0.96)	3.34(1.00)	3.87(0.81)	3.41(0.96)	3.61(0.92)
소외감	사전	3.07(0.99)	2.93(0.61)	2.99(0.78)	3.29(1.11)	2.73(0.67)	3.00(0.94)	3.19(1.04)	2.83(0.64)	3.00(0.86)
	사후	2.59(0.99)	2.38(0.89)	2.47(0.92)	3.21(0.87)	2.68(0.84)	2.94(0.88)	2.94(0.96)	2.53(0.86)	2.72(0.92)
	추수	2.70(0.83)	2.63(0.92)	2.66(0.87)	3.20(0.78)	2.50(0.66)	2.84(0.79)	2.98(0.82)	2.57(0.79)	2.75(0.82)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Mauchly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 감정, 상호 거리감, 상호 친밀감 척도는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Greenhouse-Geisser 엡실런 값을 참조하였다. 이들 척도에서 엡실런 값이 각각 .862, .858, .799

로 나타나서 1 근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수정된 일변량 분석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종속변인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 감정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집단과 출신지의 주효과가

표 5. 참여군과 대조군의 출신지별 사전검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
긍정감정	집단(A)	3.82	1	3.82	4.28**
	출신지(B)	4.12	1	4.12	7.85**
	A×B	1.06	1	1.06	2.02
	오차	26.75	51	0.52	
부정감정	집단(A)	0.03	1	0.03	0.05
	출신지(B)	0.84	1	0.84	1.39
	A×B	0.17	1	0.17	0.29
	오차	30.69	51	0.60	
연민	집단(A)	0.41	1	0.41	0.44
	출신지(B)	23.64	1	23.64	25.53***
	A×B	4.45	1	4.45	4.80*
	오차	47.23	51	0.93	
신뢰감	집단(A)	0.00	1	0.00	0.00
	출신지(B)	0.75	1	0.75	2.19
	A×B	0.15	1	0.15	0.44
	오차	17.55	51	0.34	
거리감	집단(A)	0.07	1	0.07	0.09
	출신지(B)	3.35	1	3.35	4.23*
	A×B	1.86	1	1.86	2.34
	오차	40.41	51	0.79	
친밀감	집단(A)	0.97	1	0.97	1.10
	출신지(B)	3.76	1	3.76	4.27*
	A×B	1.89	1	1.89	2.15
	오차	44.90	51	0.88	
소외감	집단(A)	0.00	1	0.00	0.00
	출신지(B)	1.60	1	1.60	2.18
	A×B	0.59	1	0.59	0.81
	오차	37.36	51	0.73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6. 집단과 출신지에 따른 사전, 사후, 추수 검사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	$\eta^2$	
긍정감정	집단						
	집단(A)	10.22	1	10.22	31.96***	0.39	
	출신지(B)	4.50	1	4.50	14.08***	0.22	
	A×B	1.32	1	1.32	4.13*	0.08	
	오차	16.30	51	1.32			
	집단내						
	측정시기(C)	6.93	1.72	4.02	14.32***	0.22	
	A×C	2.33	1.72	1.35	4.81*	0.09	
	B×C	0.01	1.72	0.01	0.03	0.00	
	A×B×C	0.28	1.72	0.16	0.58	0.01	
	오차	24.68	87.94	0.28			
	부정감정	집단간					
		집단(A)	2.12	1	2.12	5.05*	0.09
출신지(B)		0.25	1	0.25	0.61	0.01	
A×B		0.36	1	0.36	0.86	0.02	
오차		21.37	51	0.42			
집단내							
측정시기(C)		1.51	2	0.76	3.64*	0.07	
A×C		2.47	2	1.23	5.93**	0.10	
B×C		0.48	2	0.24	1.16	0.02	
A×B×C		0.87	2	0.44	2.10	0.04	
오차		21.19	102	0.21			
연민		집단간					
		집단(A)	0.46	1	0.46	0.66	0.01
	출신지(B)	13.89	1	13.89	19.91***	0.28	
	A×B	1.86	1	1.86	2.67	0.05	
	오차						
	집단내						
	측정시기(C)	6.47	2	3.24	6.78**	0.12	
	A×C	2.85	2	1.42	2.99	0.06	
	B×C	3.56	2	1.78	3.73*	0.07	
	A×B×C	0.83	2	0.42	0.87	0.02	
	오차	48.66	102	0.48			
	신뢰감	집단간					
		집단(A)	4.45	1	4.45	15.55***	0.23
출신지(B)		0.25	1	0.25	0.87	0.02	
A×B		0.23	1	0.23	0.81	0.02	
오차		14.60	51	0.29			
집단내							
측정시기(C)		3.36	2	1.68	10.13***	0.17	
A×C		6.49	2	3.24	19.58***	0.28	
B×C		0.50	2	0.25	1.51	0.03	
A×B×C		0.01	2	0.01	0.04	0.00	
오차		16.90	102	0.17			



표 6. 집단과 출신지에 따른 사전, 사후, 추수 검사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계속)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	$\eta^2$
거리감	집단간					
	집단(A)	3.06	1	3.06	5.10*	0.09
	출신지(B)	2.66	1	2.66	4.42*	0.08
	A×B	1.62	1	1.62	2.70	0.05
	오차	30.67	51	0.60		
	집단내					
	측정시기(C)	2.48	1.72	1.45	4.23*	0.08
	A×C	3.32	1.72	1.93	5.65**	0.10
	B×C	0.06	1.72	0.03	0.11	0.00
	A×B×C	0.11	1.72	0.06	0.19	0.00
오차	29.96	87.56	0.34			
친밀감	집단간					
	집단(A)	1.00	1	1.00	2.49	0.05
	출신지(B)	2.54	1	2.54	6.31*	0.11
	A×B	2.30	1	2.30	5.71*	0.10
	오차	20.54	51	0.40		
	집단내					
	측정시기(C)	9.29	1.60	5.77	8.32***	0.14
	A×C	5.95	1.60	3.72	5.36*	0.10
	B×C	0.58	1.60	0.36	0.53	0.01
	A×B×C	0.03	1.60	0.02	0.03	0.00
오차	56.55	81.52	0.69			
소외감	집단간					
	집단(A)	0.64	1	0.64	1.45	0.03
	출신지(B)	1.81	1	1.81	4.14*	0.08
	A×B	0.70	1	0.70	1.61	0.03
	오차	22.28	51	0.44		
	집단내					
	측정시기(C)	2.61	2	1.31	3.06	0.06
	A×C	1.42	2	0.71	1.66	0.03
	B×C	0.01	2	0.01	0.01	0.00
	A×B×C	0.16	2	0.08	0.19	0.00
오차	43.55	102	0.43			

\* $p < .05$ , \*\* $p < .01$ , \*\*\* $p < .001$ .

유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F(1, 51)=31.97, p < .001$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

정을 더 많이 보였다( $F(1, 51)=14.08, p < .001$ ). 집단과 출신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1, 51)=4.13, p < .001$ ).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군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전, 사후, 추수검사 각각에서 긍정 감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각각  $(F(1, 51)=.42, p>.10; (F(1, 51)=.48, p>.10; (F(1, 51)=.00, p>.10;)$ ), 대조군에서는 유의하였다(각각  $F(1, 51)=9.95, p<.01; (F(1, 51)=10.96, p<.01); (F(1, 51)=18.32, p<.001)$ ). 측정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1.72, 87.94)=14.32, p<.001$ ). 사후검증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차이 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 51)=20.48, p<.001$ ).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1.72, 87.94)=4.81, p<.05$ ). 사후검증 결과, 수준1 대 수준2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F(1, 51)=5.85, p<.05$ ), 수준2 대 수준3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51)=.07, p>.10$ ).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했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2).

부정 감정의 경우, 집단의 주효과( $F(1, 51)=5.05, p<.05$ ) 및 측정시기의 주효과( $F(2, 102)=3.64, p<.05$ )가 유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전검사-사후검사 점수에서 유의했다( $F(1, 51)=4.40, p<.05$ ).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 102)=5.93, p<.01$ ). 상호작용의 원천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 결과, 수준1 대 수준2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F(1, 51)=7.59, p<.01$ ), 수준2 대 수준3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51)=.11, p>.10$ ).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그림 3).

연민에 대해서는 출신지와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상대방에게 연민의 감정이 더 많았으며( $F(1, 51)=6.78, p<.001$ ), 이러한 차이는 사전검사-사후검사 점수에서 유의했다( $F(1, 51)=11.97, p<.001$ ). 출신지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는데( $F(2, 102)=3.73, p<.05$ ), 수준1 대 수준2( $F(1, 51)=6.54, p<.05$ ) 및 수준2 대 수준3( $F(1, 51)=4.21, p<.05$ )에서 출신지에 따른 차이가 모두 유의했다. 즉, 측정시기에 상관없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연민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 신뢰감

신뢰감에서는 집단의 주효과( $F(1, 51)=15.55, p<.001$ )와 측정시기의 주효과( $F(2, 102)=10.13, p<.001$ )가 유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전검사-사후검사 점수에서 유의했다( $F(1, 51)=16.57, p<.001$ ).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다( $F(2, 102)=19.58, p<.001$ ). 사후검증 결과, 수준1 대 수준2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F(1, 51)=25.93, p<.001$ ), 수준2 대 수준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51)=.10, p>.10$ ).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신뢰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효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5).

### 거리감

거리감의 경우, 집단의 주효과( $F(1, 51)=5.10, p<.05$ )와 출신지의 주효과( $F(1, 51)=4.42,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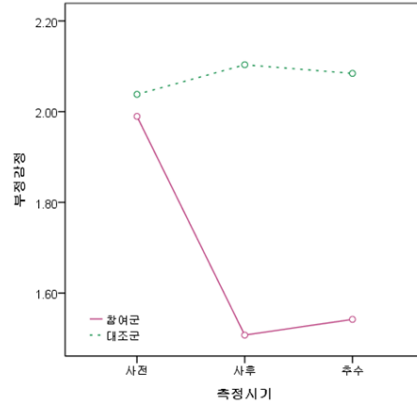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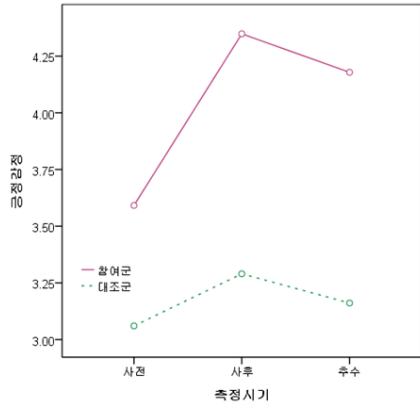


그림 2. 긍정감정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그림 3. 부정감정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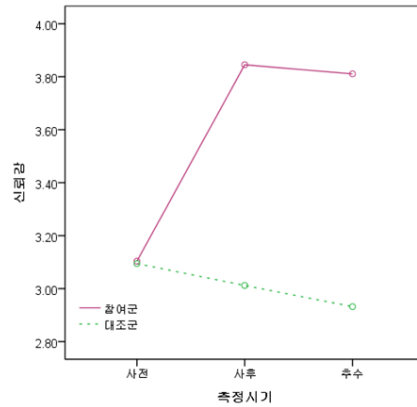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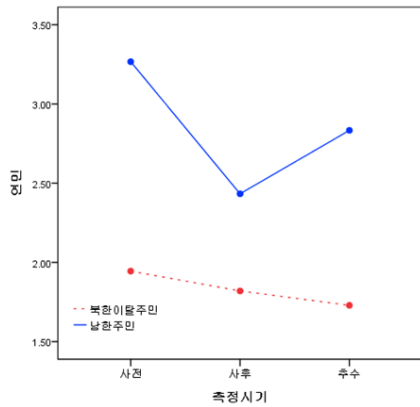


그림 4. 연민에 대한 출신지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그림 5. 신뢰감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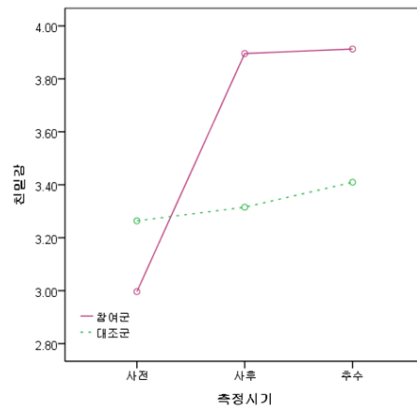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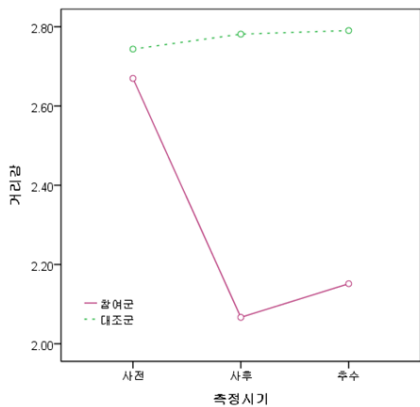


그림 6. 거리감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그림 7. 친밀감에 대한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05), 측정시기의 주효과( $F(1.72, 87.56)=4.23, p<.05$ )가 유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유의하게 줄어들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거리감이 남한주민에 비해 더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검사-사후검사 점수에서 유의했다( $F(1, 51)=5.66, p<.05$ ).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72, 87.56)=5.65, p<.01$ ). 사후검증 결과, 수준1 대 수준2의 차이는 유의하였지만( $F(1, 51)=7.27, p<.01$ ), 수준2 대 수준3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51)=.21, p>.10$ ). 이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유의하게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6).

#### 친밀감

친밀감에서는 출신지의 주효과( $F(1, 51)=6.31, p<.05$ )가 유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 수준이 더 높았다. 집단과 출신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1, 51)=5.71, p<.05$ ).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군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친밀감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각각  $F(1, 51)=.28, p>.10$ ;  $F(1, 51)=.48, p>.10$ ;  $F(1, 51)=.00, p>.10$ ); 대조군에서는 유의하였다(각각  $F(1, 51)=6.55, p<.05$ ;  $F(1, 51)=5.70, p<.05$ );  $F(1, 51)=9.56, p<.01$ ). 측정시기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1.60, 51.52), p<.01$ ). 사후검증 결과, 사전검사-사후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 51)=12.22, p<.001$ ).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1.60, 81.52)=5.36, p<.05$ ). 사후검증 결과, 수준1 대 수준2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F(1, 51)=9.72, p<.01$ ), 수준2 대

수준3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51)=.12, p>.10$ ).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친밀감이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7).

#### 소외감

소외감에서는 출신지의 주효과( $F(1, 51)=4.14, p<.05$ )만 유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이 남한주민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의 집단 및 측정시기의 주효과,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 프로그램 참여군에서 출신지에 따른 변화

프로그램 참여군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종속 측정치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신지(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를 집단 간 변인으로, 측정 시기(사전검사,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사후검사, 추수검사)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2×(9)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 감정에서는 출신지 및 측정시기의 주효과 및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8을 보면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정 감정에서는 측정시기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8, 13)=2.87, p<.05$ ).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회기는 없었다. 그림 9를 보면 프로그램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다가 중반 무렵에는 다소 증가하지만, 이후 다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민에서는 출신지의 주효과( $F(1, 20)=5.28, p<.05$ )와 측정시기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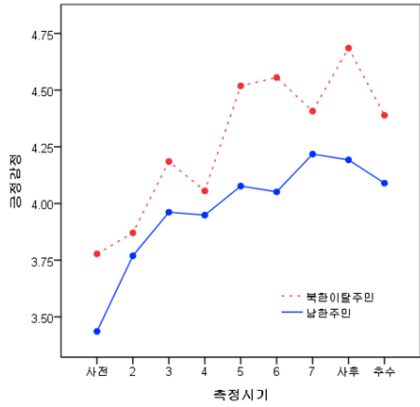


그림 8.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긍정 감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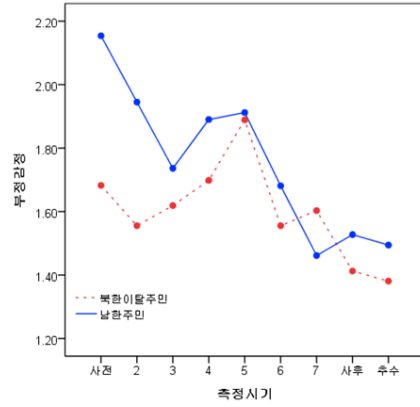


그림 9.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부정 감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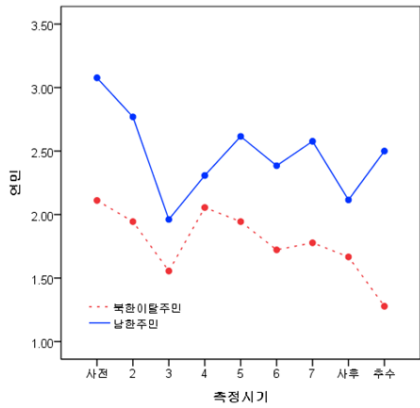


그림 10.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연민 감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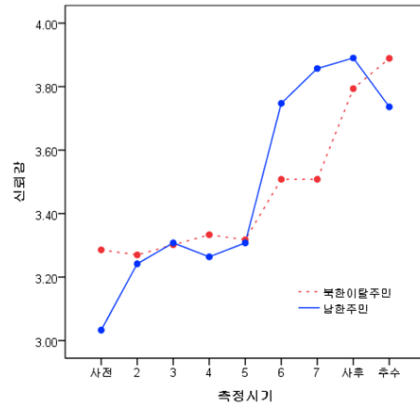


그림 11.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신뢰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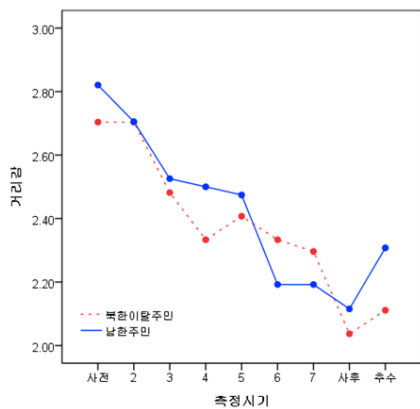


그림 12.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거리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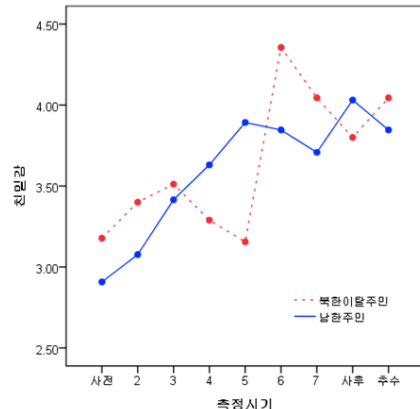


그림 13.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친밀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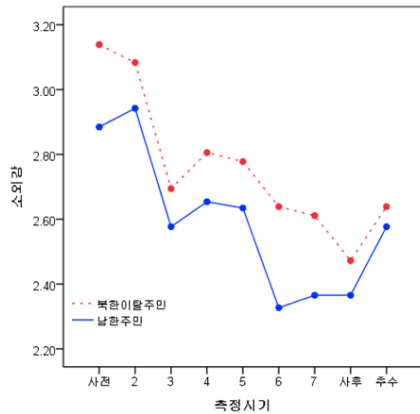


그림 14.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출신지별 소외감의 변화

효과( $F(8, 160)=2.73, p<.01$ )가 유의하였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상대방에 대해 연민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2회기와 3회기 사이에 연민 감정이 유의하게 줄어들다가 ( $F(1, 20)=4.66, p<.05$ ) 이후 약간 상승한 상태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0).

신뢰감에서는 측정시기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8, 13)=4.54, p<.01$ ). 사후검정에서 회기들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프로그램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에 변화가 없다가 중반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그림 11). 거리감에서는 출신지와 측정시기의 주효과 및 출신지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2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밀감에서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회기에서 5회기까지 남한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약간 줄어들었다가 6회기에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남한주민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그림

13). 소외감은 측정시기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8, 160)=3.77, p<.01$ ). 2회기와 3회기 사이에 소외감이 유의하게 줄어들다가( $F(1, 20)=6.39, p<.05$ ) 이후 조금씩 증감을 되풀이 하면서 줄어들었다(그림 14).

#### 프로그램 참여군의 회기별 소감문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들이 매 회기마다 작성한 소감문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주된 목적은 차이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감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나 형용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회기는 도입단계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라포 형성을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활동하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는 소감이 많았다.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은 ‘좋은’, ‘즐거움’, ‘마음이 편해지는’ 등이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첫 만남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 호기심을 함께 나타냈으며, 북한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면서 도와주고 싶다는 표현이 많았고,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도와주고 싶은’, ‘들뜨기도 하고 궁금한’, ‘서먹하고 어색한’, ‘선입견’,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가까워지는 계기’ 등이었다.

2회기는 신체 접촉을 통한 친밀감 촉진 활동으로 시작하여 서로의 거리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 및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오히려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차이를 인식하는’, ‘서로 알아가는’, ‘의미 있는’ 등의 표현이 많았다. 남한주민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몰랐으며, 서로의 관점과 생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르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자주 나타난 표현은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서로의 시각 차이’, ‘생각보다 다르고 먼’, ‘마음이 무거운’ 등이었다.

3회기는 신체 접촉을 통한 친밀감 촉진 활동으로 시작하여 서로의 말과 언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이탈주민은 아직도 모르는 외래어나 단어들 많이 있고, 남북한 간에 언어 차이가 심하지만 남한의 언어나 소통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남한주민은 떨어져 산 세월만큼 서로의 언어 차이가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언어에 대해 생소하면서도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또한, 통일이 되어도 언어의 장벽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회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친밀감 촉진을 위한 게임이 아주 즐거웠고, 이를 통해 더 친해졌다고 하였으며, ‘한층 가까워진 느낌’, ‘서로 알아가는 기쁨’, ‘점차 조금씩 변해가는 느낌’ 등의 표현이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4회기는 ‘기쁨(喜)’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며, 사소한 일상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주민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으며,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것은 똑같은’, ‘다른 듯 같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등의 표현들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에서 ‘공감’, ‘같은’, ‘가까워지는’, ‘더 잘 알게 된’ 등의 표현이 많았다.

5회기는 ‘화(怒)’에 대한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니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면서 편해졌다는 표현들이 많았다. 남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 간에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느끼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하며, 많이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개인의 차이로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비슷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6회기는 ‘슬픔(哀)’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였고,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은 다르지만 서로 비슷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에 있는 가족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슬프기도 하였지만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서로의 슬픔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이었으며, ‘비슷비슷’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으며, 만남이 이어질수록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는 표현들이 있었다.

7회기는 ‘즐거움(樂)’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하였고, 인생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인생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 경우가 많았고, 자신에게만 힘든 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결국 없이 산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는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낸 자신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하였으며,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표현하였다.

8회기는 마지막 회기로서, 함께 꿈꾸는 세상에 대한 공동화 작업을 한 후 참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하였고, 한국생활에 버팀목이 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깨졌다는 소감이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많아졌으며,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하였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위

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추수회기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달라진 점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생활에도 남한사람들을 대하거나 이야기하기가 편해졌다고 하였다. 남한주민들에 대한 생각이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한주민을 이해하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기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고, 밖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도 편하게 마주보며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과 거리감이 줄어들면서 점차 가까워지고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던 과정들을 이야기했고,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입 대상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측면들과 서로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것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유사한 프로그램(한성열 등, 2007)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교류에 대한 욕구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면에서 보면, 본 프로그램은 전체 회기를 8회기로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게 서로에 대해 교육하고 알려주기 보다는 서로 이야기하고 차이를 확인하며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한성열 등(2007)은 4회기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회기를 늘릴 필요가 있고, 단순 접촉 보다는 신뢰로운 협동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전체 회기를 8회기로 구성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입부를 신체 접촉이나 협동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과 일상생활의 회로에락을 공유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서로의 언어나 사회문화적인 차이들에 대한 지적인 이해 외에도 신체적 접촉과 일상생활 공유를 통한 정서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부정적인 감정은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하였으며,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 효과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에서 유의했고,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양자 간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한성열 등, 2007)를 지지하며,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추후에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신뢰감이 증가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성열 등의 프로그램에서 남한주민만 신뢰감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에서는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된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 회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 같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남한주민에게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동등하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도 교육이나 설명보다는 활동과 대화가 주를 이루었고,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도 8회기로 구성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군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친밀감과 거리감, 신뢰감이 변화하는 양상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친밀감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거리감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은 첫 회기 이후에 줄어들다가 중반 무렵까지 상승한 다음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첫 만남을 통해 기존에 상대방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다시 증가하다가 만남과 교류가 더 이어지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양가적이다(김희경, 2016).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증감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음 적용하는 것이고, 참여자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일반적인 것인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은 상호 감정이나 거리감, 친밀감이 변화하는 양상과 약간 달랐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신뢰감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중반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5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열 등(2007)은 단순 접촉 만으로도 서로 간의 문화적인 이질감을 극복하고 유사성과 동질감이 형성되지만, 신뢰감은 중도 탈락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프로그램이 4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5회기 이후부터 신뢰감의 변화가 나타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양자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연민 감정은 여타의 감정이나 태도들과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달랐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연민 감정은 처음부터 많았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남한주민이 프로그램의 첫 회기에서 표현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등의 단어들은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회기에서도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들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하였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정적 감정 뿐 아니라 연민의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숙 등, 2011; 이수정, 양계민, 2013). 즉,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호기심이나 동정심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주지만,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주민의 그러한 호기심어린 시선과 위로를 부담스러워한다(김희경, 2016).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등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연민의 정서가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양계민, 정진경, 2005). 이러한 결과는 남한주민의 연민이나 동정심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을 불쌍하거나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관심과 배려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소외감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사회적 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이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운석, 김명선, 2015; 유시연, 2001;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을 완화시킬 정도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되지 못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소외감이 남한사회나 남한주민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에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은 사회적인 관계 뿐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적대적 지각(민영, 2012), 돈은 꼭 있어야 하며 인생은 풍요로워야 한다는 생각, 문화적 개방성, 귀인양식 등(김영만, 2003)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른 집단에도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고,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의 원천이나 소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거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다문화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이나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게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가 적고,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서 프로그램 참여군과 대조군에 무선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다른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탈북 남성 및 남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신뢰감, 거리감, 친밀감 등이 변화하는 양상도 비교해봐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목표, 그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신뢰감이나 친밀감, 감정의 변화

등을 확인하였지만, 그 변화가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 전체에 대한 태도나 감정의 변화로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남한주민의 태도는 본 프로그램이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이나 하나센터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프로그램에도 거의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참여하였다. 회기 소감문의 양도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많고 내용도 풍성하였으며,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거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본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실제로 교류 경험이 많은 남한주민들은 교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양자 간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였다(김희경, 2016; 유혜숙 이현숙, 2014).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제공된다면 남한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나원의 교육생들은 남한 사회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된 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에 있다. 남한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남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프로그램의 구성과 횟수 등을 하나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 1회씩 8회에 걸쳐 운영하는 방식을 1박 2일의 집중 진행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원의 교육이 지금보다 더 개방적으로 운영된다면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운영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지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이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남한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본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은 차별에 대한 걱정과 호기심에 대한 거부감으로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비율이 58.4%에 이른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a).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4.8%로 일반 국민에 비해 높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b). 이들은 학교 문화적응 스트레스(김연희, 2009), 문화적인 이질감(최미혜, 2016),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나 의사소통방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김화순, 2004; 박은

숙, 2014; 이종은, 2008; 조정아, 정진경, 2006)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직장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적극적인 접근 방식(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으로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점들에 기초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언어, 대인관계 방식 등에 관한 배경 지식과 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석생이나 중도 탈락자에 관해 집단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다. 집단 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각 집단원을 개별적인 존재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 전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집단원의 말과 행동을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로 인해 어떤 집단원의 언행은 프로그램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 더 커진다(한성열 등, 2007).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결석과 중도 탈락이 남한주민에 비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 배우자나 이성과의 관계 문제 등 불안정한 생활 및 가정환경 때문이었다.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무단결석을 한 경우는 없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 여부와 이유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었다. 이 과정은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가 속한 집단 전체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새터민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73-706.
- 권태용 (2008).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단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우울과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수 (2004).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실험연구: 사회적요망성과 맥락단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극복 프로그램 효과 검증: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533-548.
-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191-215.
-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과 영향인: 2007년 입국자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2), 141-174.
- 김영만 (2003).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규, 이상하, 이린아, 김정한, 신지영, 이동훈 (2014).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하나원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자아개념, 사회성, 충동성, 불안과 우울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8(1), 89-103.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화순 (2004). 북한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1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529-562.
- 민성길, 전우택, 김동기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5(3), 269-275.
- 민영 (2012). 이주 소수자의 미디어 이용, 대

- 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적대적 지각: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탐색. *한국언론학보*, 56(4), 414-481.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은숙 (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제처 (20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제1268호)*. 법제처 홈페이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a). *2014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b).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운석, 김명선 (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남한 사회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9(1), 54-91.
- 신수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97-115.
- 오수성, 김희경, 김석웅, 최영미 (200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극복 프로그램*. 서울: 통일부.
- 유시연 (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해숙, 이현숙 (20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325-365.
- 윤인진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경희, 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59-481.
- 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 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395-421.
- 이재민, 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6), 61-84.
- 이종은 (2008).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직장유지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2(1), 33-61.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정윤경, 김희진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5(4), 143-167.
- 정윤경, 김희진, 최지현 (2015).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과 적응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1(2), 157-182.
- 정진경 (1998). 남북한 간 문화이해지의 제작. *통일연구*, 2(2), 165-185.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정아, 정진경 (2006).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논총*, 15(2), 29-52.
- 조하나 (2013).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혜 (2016). 북한이탈 대학생의 적응 스트레스 및 대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 교사회복지*, 35(35), 85-112.
- 최현욱,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6(3), 469-482.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33-54.
- Anderson, J. F. (1979). Teacher immediacy as a predictor of teaching effectiveness. In B. Ruben (Ed.), *Communication Yearbook* 3(pp. 543-559).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Dean (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5), 753-758.

원 고 접 수 일 : 2017. 02.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7. 24  
게 재 결 정 일 : 2017. 09. 11

## A Group Counseling Program Pertaining to Trust and Intimacy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Hee Kyu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designed to facilitate trust and intimacy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and intervention programs as well as the results of needs studies on the contact experience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were reviewed. The program was comprised of 8 sessions; levels of variable interests were compared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t three different intervals (pre, post-, and follow-up). Findings showed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significantly increased positive feelings, trust and intimacy and decreases negative and distant feeling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Trust, Intimacy, Contact, Prejudice, Group counseling program